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통해서 본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 분석¹⁾

이승현*

1. 서론

제2 성전시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모세와 더불어 그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묵상 대상 중 하나였다.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신적 규정을 제시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비교, 창 12, 17, 22).²⁾ 제2 성전시대 말미 예수-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으로 간주한 바울에게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했다(비교, 갈 1:11-16; 롬 1:14-15).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한 이방인들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창 12:3-7; 17:4-8).³⁾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을 예수로, 그리고 자신이 선포하는 예수-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완성으로 이해했다(비교,

* 호서대학교 부교수, 신약학

- 1) 이 논문은 2022년도 호서대학교의 제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202202140001).
- 2) 제2 성전시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이해를 위해서 다음 책에 담긴 논문들을 참조하라. 참조, S. A. Adams and Z. Domoney-Lyttle,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London; New York: T&T Clark, 2019).
- 3) 참조, 이승현, "아브라함과 성령을 통해서 본 갈라디아인들의 칭의 이해," 「신약논단」 27(1) (2020), 229-269.

롬 1:1-6). 이에 바울은 예수-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지닌 의미를 구약과 그 안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물론 후대 유대인들의 해석학적 전통의 빛 아래서) 설명하기 원했다(갈 3-4; 롬 4).

바울 신학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가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최근 벌어진 바울에 대한 옛 관점과 새 관점 간의 다양한 해석학적 충돌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크게 두 가지 견해들로 대변되었다: (1) ‘개인적 구원론적 견해’와 (2) ‘공동체적 사회학적 견해’.⁴⁾ 여기서 학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견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경건한 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로만 보거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내지는 이방인들의 축복을 위하여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보았다.⁵⁾ 사실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개인적 믿음 및 칭의와 더불어, 그가 후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미친 공동체적 사회학적 의미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⁶⁾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위의 두 견해를 지나치게 경직된 이분법에 근거한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 위치시키고, 자신들의 견해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바울 해석에 대한 특정 거대서사의 선택을 강요했다. 그러나 특정 학자들 개인의 눈에만 보이는 특정 거대서사를 통해서 바울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건장한 해석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바울 서신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이야기를 바울 해석에 대한 ‘지배적 거대서사’(controlling

4) 참조, D. Shaw, "Romans 4 and the Justification of Abraham in Light of Perspectives New and Newer," *Themelios* 40(1) (2015), 53; C. Tilling, "Abraham in New Testament Letters,"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Adams and Domoney-Lyttle, eds., 130-131.

5) 예를 들면, N. T. Wright는 창세기에 기초를 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로마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 근거를 로마서 4:4와 창세기 15:1이 헬라이어 단어 *μισθός*를 통해서 함께 연결된다는 사실에서 발견한다. N. T. Wright, "Paul and the Patriarch: The Role of Abraham in Romans 4," *JSNT* 35(3) (2013), 233.

6) J. Barclay,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MI: Eerdmans, 2015), 482-83.

meta-narrative)로 제시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를 곡해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우리는 로마서를 지배하는 거대서사를 로마서 문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거대서사를 중심으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로마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1:16-17에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의 논지를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복음을 통해서 요약된 형태로 제시한다.⁷⁾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본문에서 자신의 논지를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한다(1:18-4:25; 5-8장; 9-11장). 로마서의 문맥적 흐름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바울의 로마서 논의를 주도하는 거대서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고,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되는가로 보인다. 물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인류의 죄 이야기를 그 어두운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와 인류의 죄 이야기는 로마서 5:12-21에서 그 이야기들을 대표하는 아담과 예수의 대조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러나 신학적으로 매우 함축적으로 비교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우리는 (1) 로마서 해석을 위한 지배적 거대서사를 문맥을 통해 재구성해 보고, (2) 아담과 인류가 보여주는 죄 이야기와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본 후, (3) 이 두 이야기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⁸⁾

7) B. Byrne, *Roman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7), 51-54;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63-79;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154-188; J. A.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st ed. (New York: Doubleday, 1993), 153-156.

8) 이 논문은 저자의 다음 저서 4-5장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린다. 참조,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론과 새 관점』 (서울: 감은사, 2020), 143-262.

2. 로마서의 문맥과 지배적 거대서사 그리고 아브라함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는 크게 두 가지 견해들로 제시되었다. 주로 옛 관점 학파와 연결되는 개인적 구원론적 견해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성도 개인이 보여야 할 구원 얻는 믿음의 표준이다. 이 견해에서 아브라함은 성도들의 이신칭의에 대한 성서적 증거요 모델로 기능한다.⁹⁾ 반면에 주로 새 관점 학파와 연결되는 공동체적 사회학적 견해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 죄인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적 가족(one worldwide family)을 형성하게 되는 통로로 기능한다.¹⁰⁾ 이 견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실함은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과 칭의의 근거가 아니다. 대신 무수한 이방인 자손들의 탄생, 혹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되는 근거이다. 그러나 첫 번째 개인적 구원론적 견해는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아버지요, 그들이 구성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대표자라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한다(비교, 롬 11; 15:8-12). 그리고 개개 성도들의 회심을 염두에 둔 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추상적으로 신학화하는 경향성을 띤다.¹¹⁾ 반면에 두 번째 공동체적 사회학적 견해는 의로운 유대인과 죄인 된 이방인이라는 유대인들의 이분법적 인간관을 바울에게 강요한다.¹²⁾

9) 믿음과 칭의의 다양한 의미와 함축들에 대해서 저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자세히 논의했다. 참조,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168-195; 이승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 1:18의 Γάρ와 하박국 2:4의 해석학적 기능, 그리고 새 관점," 「신약논단」 27(3) (2020).

10) 참조, Wright, "Paul and the Patriarch: The Role of Abraham in Romans 4," 209; N. T. Wright, *Pauline Perspectives : Essays on Paul, 1978-2013*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3), 555-556.

11) 사실, 바울과 동시대 유대인 필로는 아브라함을 헬라 철학이 소중하게 간주하는 덕목들을 대표하는 자로 추상화시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참조, O. McFarland, "Whose Abraham, Which Promise?: Genesis 15.6 in Philo's De Virtutibus and Romans 4," *JSNT* 35(2) (2012), 107-129.

그리고 이 견해는 예수 사건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분을 초월해 버리는 바울 복음의 혁신성을 무시해 버린다(비교, 2:28-29; 갈 3:27-28).¹³⁾ 특히 로마서의 논의를 주도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에 대한 위의 두 견해 간의 갈등 구조는 일부 학자들이 집착하는 지나치게 경직된 이분법으로부터 말미암은 듯 보인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개인적 믿음과 칭의, 그리고 후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미친 아브라함의 공동체적 사회학적 영향은 모두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에 중요하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해에 대한 위의 두 견해 간의 충돌 속에서, N. T. 라이트를 필두로 한 일부 학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할 특정 배경 이야기를 바울 해석에 대한 ‘지배적 해석학적 열쇠’(controlling hermeneutical key), 혹은 거대서사로 제시한다. 라이트는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명을 완성하는 분으로 제시한다.¹⁴⁾ 그러나 로마서 바깥에 존재하는 특정 이야기를 통하여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재구성하고, 그 거대서사를 통하여 로마서를 해석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를 곡해할 가능성이 크다. 바울에 대한 해석학적 거대서사는 항상 바울 서신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는 이야기들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로마서의 문맥과 구조 그리고 수사학적 측면에서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재구성하고, 그 거대서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어떠한 질적인 차이도 없이 아담, 혹은 예수에게 속한 동일한 인류의 구성원들로 간주한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으로, 혹은 예수 안에서는 모두 의로워진 자들로 발견된다(참조, 롬 1:16; 2:9; 3:22-24, 29; 4:11-12; 5:12-21).

13) 참조, J. Dunn, *New Testament Theology : An Introduction*, LB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14-18, 24-31; L. W. Hurtado, *Lord Jesus Christ : Devotion to Jesus in Earliest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3), 64-73.

14) 참조,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첫 번째, 로마서의 문맥적 흐름을 중심으로 로마서의 거대서사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1:16-17에서 바울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복음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한다. 이 주제 본문을 근거로 볼 때, 로마서 논의를 주도하는 거대서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고, 그 결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즉 복음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로 보인다. 이어지는 로마서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먼저 표현되고(1:18-3:20), 곧이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표현되었다고 선포한다(3:21-4:25).¹⁵⁾ 그리고 5-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 예수-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바울은 예수-복음을 근거로 탄생한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대화 형태로 자세히 묘사한다. 여기까지의 로마서의 문맥적 흐름을 고려할 때, 로마서의 거대서사는 인류의 죄 이야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인 유대인들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예수-복음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속에서 자세히 논의한다.¹⁶⁾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운명은 인류의 죄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에 포함된 한 구성요소이다.

두 번째, 로마서의 구조적 측면에서 로마서의 거대서사와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로마서의 서론부(1:1-17)는 로마서의 전체 논지를 알려주고, 결론부(15:14-16:27)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한다면, 로마서는 크게 교리적 부분(1:18-11:36)과 실천적 부분(12:1-15:13)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로마서의 교리적 부분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1) 인류의 죄에 대한

15)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145.

16)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비밀을 소위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흥미롭게 설명한다.

심판과 구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1:18-4:25), (2) 믿고 의로워진 성도들에게 허락된 영광의 구원의 소망(5:1-8:39),¹⁷⁾ 그리고 (3) 이방인 성도들에게 허락된 구원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간의 상관성(9:1-11:36).¹⁸⁾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는 위에서 언급된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잘 반영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의 거대서사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장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믿음 그리고 칭의에 대한 논의는 로마서의 첫 번째 교리 부분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두 번째 교리 부분으로의 전이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리 부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자들의 아브라함 이해는 로마서 4장이 차지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치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수사학적 방법론의 측면에서 로마서의 거대서사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관찰해 보도록 하자. 로마서의 첫 번째 교리 부분에서 바울은 인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과 구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를 ‘가상적 유대인과 대화 형태’로 전개한다(1:18-3:31). 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예수-복음의 도전에 대한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반발을 바울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 부분에서는 예수-복음이 가져온 성도들의 현재적 자유와 미래 구원의 소망을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1인칭 복수형을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대화 형태’로 설명한다(5:1-8:39).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 회심과 현재의 성령 체험을 근거로 바울은 그들과 자신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예수-복음의 효과성과 진리성을 증명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교리 부분의 시작인 5:1-11에서 바울은 두 번째 교리 부분의 전체적 논지인 성도들의 칭의와 영광의 소망을 먼저 소개한다. 그리고 5:12-21에서는 성도들의 칭의와 영광의 소망의 근거로 예수의 사역을 아담과 비교하며 제시한다. 이 놀라운 본문은 아담과 예수

17) 참조, 이재현,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Canon&Culture」 4(2) (2010), 183-215.

18) 참조, Byrne, *Romans*, 27-28;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32-35;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vi-vii.

를 의와 생명의 긍정적 연결고리와 죄와 사망의 부정적 연결고리를 통하여 대조적으로 비교 설명한다. 5:12-21의 중심인물들인 아담과 예수는 각각 인류와 새 인류의 대표자들이다. 그리고 1:18-3:31에서 묘사되는 인류의 죄 이야기와 그에 대한 심판과 구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각각 상징한다. 로마서에서 예수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 된 세상에 침투한 구원사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1:1-3; 3:21-26; 5:1-11).¹⁹⁾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아담과 예수는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인격적으로 형상화하는 핵심 인물들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은 이 두 본문 중간에 위치한 로마서 4장에 등장한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담과 인류의 죄 이야기, 진노와 구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들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는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구성하는 이 이야기들과의 상관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3. 아담과 인류의 죄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거대서사가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임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복음의 형태로 담겨 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표현되기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먼저 표현된다. 이 사실은 인류의 죄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배경임을 알려준다. 이제 인류의 죄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형상화하는 아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9) B. Byrne, "A Pauline Complement to Laudato Si'," *TS* 77(2) (2016), 318-319.

3.1.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인류의 죄 이야기

로마서 1:16-17에서 자신의 서신서 전체 논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바울은 이어지는 1:18-3:20에서 복음이 결여된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준다. 바울에게 복음이 결여된 인류의 상태는 인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방인의 경우(1:18-32)와 유대인의 경우(2:1-11)로 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²⁰⁾ 먼저 1:18-32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 논제의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인류의 불의와 죄 문제를 논하면서 율법과 율법의 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발견된다.²¹⁾ 그러나 2:1-3:20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강조한다. 이 부분의 논의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상의 대화자를 ‘남을 심판하는 사람’(παῖς ὁ κρίνων, 2:1)이라고 칭한다. 2:17에서 이 사람의 정체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유대인임이 드러난다.²²⁾ 이처럼 로마서의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로 구분하지만, 그들이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임을 입증하려 한다. 이를 통해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비롯한 그 어떤 국가적 특권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원한다. 바울에게는 예수-복음을 제외한 그 무엇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첫 번째,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불의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른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ἀσέβεια)과 불의(ἀδικία)’라고 한마디로 요약

20)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저자는 다른 곳에서 이미 상세하게 제공했다. 참조,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146-53.

21)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70.

22) 심판하는 사람의 정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97-299를 참조하라. 그리고 이 심판자의 율법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imon J.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 Early Jewish Soteriology and Paul's Response in Romans 1-5*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197-215.

한다(1:18-32).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불의로 억누른 인류의 불경건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발견된다(1:21-23, 25, 28).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피조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성품들,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전제한다(1:20).²³⁾ 그러나 비록 인류는 피조세상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인류는 창조주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지식을 불의로 억누르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의 영광과 맞바꾸어 버린다(1:23). 이러한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진노로 표현된다. 바울은 하나님 진노의 표현방식을 세 가지 부정적인 형태로 묘사한다(1:24, 26-27, 28-31): (1)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2) 자연의 순리에 반하여 서로가 욕정에 사로잡히며, (3) 그들의 삶이 시기와 살인 등을 포함한 각종 악한 일들로 채워지도록 ‘내버려 둬’(παρέδωκεν, 1:24, 26, 28).²⁴⁾

그러나, 두 번째, 바울은 이방인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유대인들도 정작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한다(2:1-11).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율법을 소유하였음을 근거로 자신들의 종말론적 안전을 확신하고 있었다(지혜서 11:9-11; 11:23; 12:22; 15:1-3).²⁵⁾ 그러나 유대인들의

23)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73; J. D. G. Dunn, *Romans*, 2 vols., WBC (Dallas, TX: Word Books, 1988), 1:50;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99.

24) 참조, Byrne, *Romans*, 66-70; R. Jewett, *Romans :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165;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215-216.

25) Byrne, *Romans*, 81;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88;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 Early Jewish Soteriology and Paul's Response in Romans 1-5*, 201.

종말론적 안전에 대한 기대와 달리,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종말의 심판 때에 폭발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한다(롬 2:4-5).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지 않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2:17-24).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 지식을 습득한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더 완전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교정하는 자’요, ‘미성숙한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칭한다(2:17-20).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와 간음과 도적질’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다(2:22-24).²⁶⁾ 이 사실을 바울은 구약성서에 담긴 여러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한다(3:9-18). 결국 바울의 관점에서는 율법과 할례의 특권을 소유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로 판명 난다(3:9).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할례와 언약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국가적 특권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비교, 3:1-2; 9:3-5; 15:7-12). 바울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언약에도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구원의 복음을 먼저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발견된다(Ἰουδαίῳ τε πρῶτον καὶ Ἑλλήνι, 1:16). 그러나 바울에게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특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 죄인들이라는 사실이다.²⁷⁾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그들의 죄를 향해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진노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간과한다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관 됨에 대한

26)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공격은 당시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한 의로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공격이다. 참조, 솔로몬의 *시편* 8:8-13; CD 4:12-17; 8:4-10; 필로 *Conf.* 163. 참조, Byrne, *Romans*, 98; 이승현, 『바울의 야담 기록론과 새 관점』, 151.

27)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15.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3:9-20; 비교, 사 59:7-8; 시 14:1-3).²⁸⁾ 비록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과 특권을 여전히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그들 행위의 질적 내용에 대한 ‘동일한 심판’을 제공하는 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롬 2:6-11).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한 동시에 공정한 분이라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구원의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게 해준다.

3.2. 아담의 죄 이야기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한 우상숭배의 죄를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한 인류를 구성한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한 동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편에서 인류에게 제공된, 따라서 하나님 은혜의 표현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이다(3:21-26). 그런데 로마서에서 예수는 아담의 대형으로서 그의 타락과 저주를 극복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5:12-21에서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를,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인류에게 미친 효과를 대조하며 설명한다.²⁹⁾ ‘마치~처럼, 역시~하여’(ὡςπερ~καὶ οὕτως, 5:12, 19, 21) 등의 헬라이어 표현들을 통하여 바울은 아담과 그에게 속한 인류의 운명을 죄와 정죄 그리고 죽음으로 묘사한다. 반면에 새 아담 예수와 그에게 속한 새 인류의 운명은 의와 칭의 그리고 생명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5:12-21이 1:18-3:31에 담긴 바울의 앞선 논의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공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첫

28) Frank Thielman, "God's Righteousness as God's Fairness in Romans 1:17: An Ancient Perspective on a Significant Phras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 no. 1 (2011): 35-48.

29) 참조,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211-262.

30)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239; Otfried Hofius, "The Adam-Christ Antithesis and the Law: Reflection on Romans 5:12-21," in *Paul and the Mosaic Law*, James D. G. Dunn, (ed.) (Grand Rapids: Eerdmans, 2001), 178-179.

번째, 1:18-3:31에서 인류의 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다. 마찬가지로, 5:12-21에서 아담과 예수의 행위의 특징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즉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다. 두 번째, 1:18-3:31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죽음, 그리고 구원을 위한 칭의로 표현되었다. 마찬가지로 5:12-21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동일한 개념들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다. 이 사실은 5:12-21이 1:18-3:31과 연관하여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첫 번째, 5:12-21은 1:18-3:31에서 언급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인류의 죄 이야기를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한층 더 심화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5:12-21은 예수의 회생이 아담과 인류의 죄 이야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본질임을 알려준다. 이미 3:21-31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담겨 있음을 선포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략한 형태로 단언한다. 이 사실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창세기 1-3장의 아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비교, 롬 16:20).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는 로마서 5장이 제시하는 새 아담 예수의 구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1-3장이 묘사하는 인류의 죄 이야기의 부정적 배경으로 기능한다.³¹⁾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의 모든 자손은 그와 동일한 운명을 그들의 삶에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 인류를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가두어 버린 인류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모든 후손이 계속해서 그의 죄와 죽음을 모방하는 부정적 모델이다. 이 점은 아담의 죄의 본질과 1:18-3:20에서 묘사되는 인류의 죄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잘 발견된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 드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 그 결과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31) Byrne, *Romans*, 64-65;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164-172; M. D. Hooker, *From Adam to Christ: Essays on Pau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73; J. R. Levison, "Adam and Eve in Romans 1.18-25 and the Greek Like of Adam and Eve," *NTS* 50(4) (2004); J.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91.

영광을 상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뱀이라는 피조물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상숭배의 죄였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속한 인류도 창조주에 대한 지식에 반하여, 그에게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의 썩어질 영광과 바꾸어버렸다. 그 결과 인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간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멸의 영광을 상실한 채 영적으로 별거벗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3:23).

이처럼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인류의 죄와 죽음 이야기는 그들의 대표자 아담 이야기의 지속적 반복 현상에 불과하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조차도 아담의 운명을 공유하면서 아담의 죄 이야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유대인들도 그들 마음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7:7-23; 8:1-4).³²⁾ 그러나 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선한 율법 안에는 아담과 인류의 악한 마음을 극복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비교, 고후 3:1-6).

4.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위에서 우리는 아담과 인류의 죄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피조물들의 이야기임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바울의 예수-복음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의와 인류의 죄 이야기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류를 향하여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1)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2)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신실함의

32) 참조, R. H. Bell, "The Myth of Adam and the Myth of Christ in Romans 5.12-21," *Paul, Luke and the Graeco-Roman World : Essays in Honour of Alexander J.M. Wedderburn*, A. J. M. Wedderburn and A. Christophersen, eds. (London ;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21-36;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론과 새 관점』, 247-248.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완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핵심이다.

4.1.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은혜

아담과 인류의 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은혜 두 가지로 표현된다. 바울은 먼저 인류의 죄를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한다. 첫 번째, 로마서 1:18-32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바울은 불의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는 이방인들의 악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παρέδωκεν, 롬 1:24, 26, 28)라는 표현을 통해 세 단계에 걸쳐서 묘사한다. 하나님의 심판적 방치의 결과, 인류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는 불결한 마음의 정욕을 따라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1:24). 인류의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반하여 서로를 향한 욕정에 사로잡히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1:26-27). 그리고 인류에게 속한 모든 사회적 관계망들의 측면에서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살인 등의 각종 악한 일들이 세상에 창궐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1:28-31). 흥미롭게도 로마서에서 묘사되는 타락한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들이 사는 피조세계에 미친 삼중적 저주와 동일하다.

두 번째, 로마서 2:1-11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세히 묘사한다. 바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우상숭배와 타락의 죄들을 범하고 있다(2:1-3). 사실 1:23에서 묘사되는 우상숭배의 죄, 즉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인간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행위는 시편 106:20을

상기시킨다.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로마서 1:23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헬라이어 표현들을 통하여 사내산의 황금 송아지 사건을 한탄하고 있다(비교, 출 32).³³⁾ 그리고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우상들의 썩을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레미야 2:5-6과 신명기 4:15-18에서도 증거되고 있다. 바울은 우상숭배와 그에 동반되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다양한 죄에 유대인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로마서 3:10-18에서 바울은 구약성서 선지자들의 다양한 선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견주어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하는 유대인들도 정작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2:4-5). 바울의 관점에서는, 본성적 측면과 그 본성의 발현에 따른 결과적 측면 둘 다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예외 없는 아담의 후손들에 불과하다. 아담의 죄와 타락 그리고 저주받은 운명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아담의 인류는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은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창조주의 신실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신실함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표현된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사실 바울이 이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기 때문이다(3:21-26). 이에 3:21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νυνὶ δέ)이라는 헬라이어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그가 전하는 예수-복음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계시되고 있음을 환희에 찬 목소리로 선포한다. 이 헬라이어 표현은 인류의 죄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33)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93; Byrne, *Romans*, 68; Hooker, *From Adam to Christ : Essays on Paul*, 73-76.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인류에게 임했다는 바울의 종말론적 인식과 기쁨을 강력하게 표현한다.³⁴⁾

4.2.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3: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는 헬라어 표현 속에서 언급하기 시작한다. 이 헬라어 표현은 옛 관점과 새 관점 간의 논쟁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주제이다. 이 헬라어 표현은 바울 학자들에 의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1) 예수 자신의 신실한 순종을 가리키는 ‘주격 소유격’(subjective genitive),³⁵⁾ 혹은 (2) 예수-복음을 향한 믿는 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강조하는 ‘목적 소유격’(objective genitive).³⁶⁾ 그러나 예수-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계시한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운 분이고, 동시에

34)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41-342;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73;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99;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153-154.

35) 이 견해는 Hays와 그를 추종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참조, R. B.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36) S. J. Gathercole, "What Did Paul Really Mean?: 'New Perspective' Scholars Argue That We Need, Well, a New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by Faith," *CT* 51(8) (2007), 22-28; J. D. G. Dunn, "Once More: Pistis Christou," *Sbl Seminar Papers*, E. H. Lovering Jr., (ed.) (Atlanta: Scholars, 1991), 730-744; M. C. Easter, "The Pistis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CBR* 9(1) (2010), 33-47;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68-169. 이 논문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본 저자는 목적 소유격 이해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 이진섭, "믿음의 법과 아브라함(롬 3:21-4:25)," 『Canon&Culture』 3(2) (2009), 211-248.

‘예수-믿음을 통해서 난 자’(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3:26)를 의롭게 해주는 분임을 계시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은 바울에게 예수-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자신의 신실함이나 순종(Christocentric), 혹은 예수-복음에 대한 인류의 긍정적 믿음의 반응(anthropocentric)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Theocentric)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를 참을 수 없는 본성적으로 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과의 과거 언약들에 신실한 분 즉 관계적 측면에서도 의로운 분임을 증명하기 원한다(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δίκαιον καὶ δικαιοῦντα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3:26).³⁷⁾ 바울에게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의 이중적 의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이다. 예수가 희생제물로 드러짐으로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용서 그리고 구속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된다(3:24-25).

로마서의 두 번째 교리 부분의 서두에서, 바울은 5-8장 전체의 논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의로워진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을 소개한다(5:1-11). 그 영광의 소망의 근거로 바울은 1-4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예수의 희생의 피 즉 그의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5:6-11). 바울에게 예수의 피는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요, 그들의 구속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결정적 근거이다. 여기서 바울은 불의한 자들을 위한 의로운 예수의 희생은 예수 자신의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그를 희생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분명히 한다(5:5).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수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불멸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광의 소망’을 약속으로 받는다(5:2; 8:17, 21-23, 29-30). 바울은 죄인 된 인류의 저주받은 상태를

37) Thielman, "God's Righteousness as God's Fairness in Romans 1:17: An Ancient Perspective on a Significant Phrase," 35-48; 이승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 1:18의 Γάρ와 하박국 2:4의 해석학적 기능, 그리고 새 관점," 657-661.

한 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여된 상태’라고 부른다(3:22).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인류에게 허락한 예수의 희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종말론적 절정을 구성한다(5:1-2).

그런데 이어지는 5:12-21에서 바울은 예수를 아담과 비교함으로써 예수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의 죄 이야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에게 칭의 즉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와 사망의 저주받은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는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자손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아담의 죄에 자신들의 죄를 더하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³⁸⁾ 따라서 아담의 인류 안에는 아담의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의 인류에 속하지 않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보내진 성육신한 예수의 등장과 희생은 하나님 편에서 아담의 인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5:6-11; 8:3; 비교, 빌 2:6-11).³⁹⁾ 아담의 불순종이 유발한 죽음은 인류를 다스리는 폭군이 된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의 순종의 죽음은 칭의와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를 다스리게 한다(롬 5:20-21).⁴⁰⁾

그러나 예수의 등장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절정을 구성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과 가진 특별한 관계에서 발견된다. 아담이 피조세계에 가져온 우주적

38) 아담의 운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인류의 책임을 바울은 헬라어 표현 ἐκ' ὧ(롬 5:12)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참조, Byrne, *Romans*, 177;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321-22; B. Witherington and D. Hyatt, *Paul's Letter to the Romans :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W.B. Eerdmans, 2004), 146.

39) 참조, 이승현, "빌립보서 2:6-11을 통해서 본 바울의 기독교적 구약 사용," 『신약논단』 26(1) (2019), 215-256.

40) 이 본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참조,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211-262.

저주의 엄청난 피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사실을 바울은 πολλῶ μᾶλλον, ἐπερίσσευσεν (5:15), ἐπλεόνασεν, 그리고 ὑπερεπερίσσευσεν (5:20) 등의 헬라이어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한다. 아담과 예수가 피조세계에 끼친 영향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론적 가치 차이에서 기인한다.⁴¹⁾ 아담은 땅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 최고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임명된 자이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요 대표자로서-그러나 여전히 피조물로서-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늘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임무를 부여받은 자이다. 부활 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으로 높임을 받고, 모든 만물의 경배 대상이 되었다(비교, 빌 2:9-11; 고전 15:20-28; 고후 8:9).⁴²⁾ 비록 예수는 새 아담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롬 1:3-4; 8:3; 비교, 갈 4:4-6).⁴³⁾ 따라서 아담의 범죄와 죽음은 창조주의 뜻에 대한 반역과 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지만,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들의 순종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희생의 죽음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준 하나님 자신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원수 된 인류와 화해하기를 원한다(롬 5:8-10). 이 사실은 왜 바울에게 예수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5:8; 8:32).

41) 참조,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79-102;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240-247.

42) B. Byrne, "Christ's Pre-Existence in Pauline Soteriology," *TS* 58(2) (1997), 308-330;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130-139; 이승현, "빌립보서 2:6-11을 통해서 본 바울의 기독교적 구약 사용," 229-269. 비교, S. K. Stowers, *A Rereading of Romans : Justice, Jews, and Genti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220.

43) R. N. Longenecker, *Introducing Romans : Critical Issues in Paul's Most Famous Letter*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694-696.

5. 인류의 죄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에서 본 아브라함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인류의 죄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죄 이야기가 아담을 통해서 한층 더 심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예수를 통해서 그 절정을 맞이함도 관찰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담과 인류의 죄 이야기와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됄이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그의 혈통적 기원과 연관되기에 율법에 대한 논의도 간략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율법을 아담 편에 선 죄와 사망의 우군으로 제시하고(5:13, 20-21),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믿음을 통해서 계시되었다고 선포한다(3:21-22).⁴⁴⁾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수와 아담 그리고 율법과의 상관성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5.1. 아담과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

바울에게 예수와 아담이 지닌 신학적 중요성은 그들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그들에게 속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들이라는 점이다.⁴⁵⁾ 아담이 인류에게 가져온 죄와 죽음은 인류의 주인이 되어 그들을 통치하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게 만든다(5:12-14; 8:38; 16:20; 고전 4:9; 5:5). 반면에 예수가 가져온 의와 생명은 그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

44) 바울에게 율법과 예수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에 이 짧은 논문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에 포함된 다양한 논문들을 참조하라. 참조, J. D. G. Dunn, *Paul and the Mosaic Law*, WUNT (Tübingen: Mohr, 1996).

45) M. C. de Boer, "Paul's Mythologizing Program in Romans 5-8," *Apocalyptic Paul: Cosmos and Anthropos in Romans 5-8*, B. R. Gaventa, (ed.)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12.

키고, 그 새 인류는 생명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녀들이 된다(롬 5:1, 17; 8:23).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특권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 됨과 율법이 아담과 예수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인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바울은 율법이 인류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로마서 5장과 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주도록 의도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5:20-21에서 바울은 율법이 아담 편에서 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선포한다.⁴⁶⁾ 그리고 7:7-25에서는 생명을 주도록 의도된 율법이 죄의 증가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결여된 자연인이 율법을 만날 때 겪는 내면적 갈등과 범죄를 저주받은 악한 마음의 법을 통하여 자세히 묘사한다.⁴⁷⁾ 바울은 율법이 그 자체로 선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7:7-12). 그러나 율법에는 아담에게 속한 인류의 악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율법은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가 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아래 인류를 가두어 버리는 사망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된다(7:9-19). 따라서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단순히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아담의 저주받은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도 아담이 시작한 인류의 죄 이야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5:20-21). 아담의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 은혜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악한 마음의 법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가 보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8:1-3).

두 번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과 율법의 역할을 아담 편에서 설명한

46) Hofius, "The Adam-Christ Antithesis and the Law: Reflection on Romans 5:12-21," 193;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258.

47) 이 본문에 대한 분석과 “나”의 정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참조,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282-300.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아담과 새 아담 예수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대변하는 인류의 죄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역할은 무엇일까?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4장이 차지하는 문맥적 위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다소 분명하게 보여준다.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논하기 직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별개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다고 선포한다(3:21-26). 율법의 일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계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칭의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성취는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인다(3:31).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가 한 개인의 신앙 여정에만 그치지 않고, 후대 성도들의 믿음과 칭의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가르친다(4:23-25).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칭의와 본질상 동일하다(비교, 10:9-10).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생명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칭의는 죄인 된 이방인 아브라함의 죄 용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설명한다(4:6-9).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율법은 아담 편에서 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의와 칭의는 예수 편에서 죄를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놓인 아담의 옛 인류가 아니라, 예수의 새 인류에 속한 자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수에게 속한 새 인류의 시조 내지는 성도들의 믿음과 칭의의 모델로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는 아담과 인류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의와 칭의, 그리고 새 아담으로서의 예수와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

로마서 4:1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우리 육신의 조상’(Αβραάμ τὸν προπάτορα ἡμῶν κατὰ σάρκα)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믿음과 칭의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 곧이어 4:2-3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자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일들, 믿음, 자랑, 그리고 의 등의 핵심 단어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현재 논의가 앞선 3:21-31의 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3:21-22에서 바울은 율법과는 별개로 계시된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다고 선포했다.⁴⁸⁾ 그리고 4:3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가 율법과 선지자들 즉 성경에 기록된 증거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한다.⁴⁹⁾ 이처럼 로마서 3:21-31과 4장 간에 놓인 상관성은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향하여 인류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표본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영역에 속한자임을 알려준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 됨에서 찾았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한 자의 표본으로 이해했다.⁵⁰⁾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와 율법을 경험하기 전’이었음을 분명히 한다(4:13-17). 즉, 아브라함이

48) Byrne, *Romans*, 345-348.

49) 참조, Fitzmyer, *Romans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69; R. B. Hays, "Three Dramatic Roles: The Law in Romans 3-4," *Paul and the Mosaic Law*, J. D. G. Dunn, (ed.) (Grand Rapids, MI: W.B. Eerdmans, 2001), 151-164;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160-61.

50) 예를 들면, 벤 시라 44:19-21; 마카비 1서 2:50-52; CD 3:1-3; 회년서 17:17-18; 23:10. 이 예들은 Gathercole에게서 빌려왔다. 참조,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 Early Jewish Soteriology and Paul's Response in Romans 1-5*, 235-238.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의와 언약의 축복을 경험한 사건은 그가 유대인일 때가 아니라, 이방인일 때 발생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창세기 15-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일화들이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들에 주목한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는 그가 아직 율법과 할례를 경험하기 전, 즉 불의한 죄인(τὸν ἄσεβῆ, 롬 4:5)인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 발생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칭의는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율법의 일들과 무관하게,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한 결과 발생한 은혜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다윗의 예를 추가적인 증거로 들어 상세히 설명한다(4:5-6; 비교, 시편 32:1-2).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4:14-15에서 바울은 생명을 주도록 의도된 율법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진노 아래 놓이게 할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비교, 7:7-25; 10:5; 롬 18:5).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포함한 아담의 죄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고 있다. 대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를 새 아담 예수가 성취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제 바울이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의 본질과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에 위치한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5.2. 새 아담 예수와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묘사한다. (1) 불의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4:5; 1:18); (2)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창조주(4:17; 1:20, 25), 그리고 (3)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4:21; 1:20).⁵¹⁾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심층적 믿음은

51) E. Adams, "Abraham's Faith and Gentile Disobedience: Textual Links between Romans 1 and 4," *JSNT* 19(65) (1997), 51.

바울이 1:18-3:20과 5:12-21에서 묘사한 아담과 그에게 속한 인류가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극복을 의미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는 분이다. 바울은 여기서 불경건을 묘사하기 위하여 헬라어 단어 *ἀσεβής* (4:5)를 차용한다.⁵²⁾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죄지는 자를 지칭하였으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사용했다. 그러나 1:18에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된 아담에게 속한 인류의 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ἀδίκημα*와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는 11:26에서 유대인들의 죄의 문제를 가리키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비교, 사 59:20-21). 따라서 불경건을 의미하는 *ἀσεβής*는 일차적으로 회심 전 아브라함의 이방인 됨을, 그리고 이차적으로 그가 아담의 인류에 속했던 죄인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죄인된 인류 안에 머물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⁵³⁾ 물론 바울의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수동적 간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불 경건한 자들을 위한 예수의 희생을 근거로 죄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죄인들의 칭의를 성취한다(롬 5:6-7).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이다(4:17).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52) A. A. Das, "Paul and Works of Obedience in Second Temple Judaism: Romans 4:4-5 as a 'New Perspective' Case Study," *CBQ* 71(4) (2009), 807. 그러나 이 단어 속에서 Wright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이방인 자손들의 칭의만을 본다. 참조, N. T. Wright, "Paul and the Patriarch: The Role of Abraham in Romans 4," *JSTT* 35(3) (2013), 218.

53) 참조, Adams, "Abraham's Faith and Gentile Disobedience: Textual Links between Romans 1 and 4," 51-52; 이승현,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181-183.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 두 가지 사실들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몸이 더이상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 즉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온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의 반응이 아니라, 신뢰를 품은 믿음으로 반응했다(4:18-19; 창 17:15-21).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이 주는 소망 없음 보다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신뢰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인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의 상태를 인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대신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이 주는 도전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극복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선포한다(δούς δόξαν τῷ θεῷ, 롬 4:20).

결과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능력에 대한 인류의 무지와 강하게 대조된다(4:21; 1:20).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에게 순종한 아담의 우상숭배,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으로 억누르고 피조물들을 경배한 인류의 우상숭배와도 대조된다(비교, 1:20, 25). 이처럼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믿는 자 아브라함은 아담의 인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인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청의를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한 국지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 대신 4:24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청의가 ‘우리’(ἀλλὰ καὶ δι’ ἡμᾶς)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선포한다.⁵⁴⁾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예수처럼 아담의 대형이 되어 아담의 저주를

54) 이 본문에서 1인칭 복수형 우리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교회론적 우리이다(ecclesiological we).

되돌리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구원자적 인물은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선재한 아들 예수가 보여준 순종과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한 피조물의 순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두 가지 우주적 그리고 공동체적 중요성을 발견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담의 영역에서 새 아담의 영역으로, 즉 아담에게 속한 인류에서 새 아담에게 속한 새 인류로 전이하게 하는 믿음의 종말론적 역할을 잘 증거하고 있다. 믿음이 인류의 소속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향하여 보여준 믿음을 근거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무수한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한다(4:11, 13, 16-18). 이렇게 탄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필두로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가정을 구성한다. 사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πατήρ πάντων ἡμῶν, 4:16)라고 부름으로써 이 약속이 현재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고백한다.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들은 혈통이나 할례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하나님의 새 백성은 (그들의 인종적 기원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아담의 영역에서 새 아담 예수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준 믿음이 바로 새 인류가 지닌 공동체적 정체성의 참된 표식이다.⁵⁵⁾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에게 속한 성도들의 믿음이 본질상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55) J. Dunn과 N. T. Wright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이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의 표식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성도들이 보여주는 믿음을 하나님의 새 인류의 공동체적 정체성의 표시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자들’(τῶ ἐκ πίστεως Ἀβραάμ, 4:16),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τοῖς στοιχοῦσιν τοῖς ἰχνεσιν τῆς ἐν ἀκροβυστίᾳ πίστεως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Ἀβραάμ, 4:12)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성도들의 믿음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칭의의 근거가 되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희생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수많은 자손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다(비교, 10:9-10; 갈 3:16).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앞으로 올 예수를 바라보면서, 반면에 성도들은 성취된 약속 안에서 이미 온 예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믿고 칭의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있다(롬 4:11; 갈 3:6-9). 이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그 안에서 탄생할 모든 자손, 즉 새 아담 예수에게 속한 새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줄 종말론적 믿음을 예표한다.

6. 결론

로마서의 문맥적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 무엇보다도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로마서 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인류의 죄 이야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결론부를 구성하면서, 그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로의 전환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바울에게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예수가 대변하는 종말론적 두 시대와 그 두 시대에 속한 두 인류의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물론 바울은 아담과 인류의 죄 이야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예수-복음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예수-복음 안에는 인류의 죄를 향하여 심판과 구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담겨 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의 일들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았고, 율법의 일들은 그들에게 국가적 정체성의 표시로 기능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인 율법이 아담 편에 속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바울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새 아담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만 극복된다. 따라서 인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한 구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 즉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대상으로 소속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성경적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 율법이 오기 전 이방인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거하게 되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아담의 인류에서 새 아담 예수의 인류로의 소속 변경을 경험한 성도들이 보여준 바로 그 믿음이다. 후대의 인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준 것과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의 대상, 즉 예수의 새 인류로의 소속 변경을 경험하게 된다.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대 전환적 믿음의 표본인 동시에,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아버지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문맥적 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재구성하고, 그 거대서사 안에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로마서의 거대서사는 한 마디로 인류의 죄 이야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이다. 여기서 아담과 예수는 각각 두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형상화하는 인물들이다. 이에 우리는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를 로마서의 거대서사 안에서 아담과 예수와의 상관성 속에서 설명했다. 특별히 예수와 아담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율법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기에, 율법과 연관된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는 소위 개인적 구원론적 견해와 공동체적 사회학적 견해

둘 다를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는 새 관점 학자들이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특별한 방식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하지 못했다. 이에 다음 연구에서는 새 관점 학자들이 보여주는 아브라함 읽기와 의 비판적 대화를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과거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로마서를 해석하는 N. T. 라이트와의 대화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주요어>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 지배적 거대서사, 로마서, 새 아담

<Keywords>

Righteousness of God, Abraham, controlling meta-narrative, Romans, new Adam

* 접수일 2023년 2월 27일, 수정일 2023년 3월 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9일

참고문헌

-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168-195.
- _____, "바울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 1:18의 Γάρ와 히박국 2:4의 해석학적 기능, 그리고 새 관점," 「신약논단」 27(3) (2020), 643-687.
- _____, 『바울의 아담 기독교론과 새 관점』, 서울: 감은사, 2020.
- _____, "빌립보서 2:6-11을 통해서 본 바울의 기독교론적 구약 사용," 「신약논단」 26(1) (2019), 215-256.
- _____, "아브라함과 성령을 통해서 본 갈라디아인들의 칭의 이해," 「신약논단」 27(1) (2020), 229-269.
- 이재현,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Canon&Culture」 4(2) (2010), 183-215.
- 이진섭, "믿음의 법과 아브라함(롬 3:21-4:25)," 「Canon&Culture」 3(2) (2009), 211-248.
- Adams, E., "Abraham's Faith and Gentile Disobedience: Textual Links between Romans 1 and 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9(65) (1997), 47-66.
- Adams, S. A., and Z. Domoney-Lyttle.,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London ; New York: T&T Clark, 2019.
- Barclay, J. M. G.,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MI: Eerdmans, 2015.
- Bell, R. H., "The Myth of Adam and the Myth of Christ in Romans 5.12-21," Edited by A. Wedderburn and A. Christophersen, *Paul, Luke and the Graeco-Roman World : Essays in Honour of Alexander J.M. Wedderburn*,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 Boer, M. C. de. "Paul's Mythologizing Program in Romans 5-8," Edited by B. R. Gaventa, *Apocalyptic Paul : Cosmos and Anthropos in Romans 5-8*,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 Byrne, B., "Christ's Pre-Existence in Pauline Soteriology," *Theological Studies* 58(2) (1997), 308-30.

- _____, "A Pauline Complement to Laudato Si'," *Theological Studies* 77(2) (2016), 308-327.
- _____, *Roman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7.
-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Das, A. A., "Paul and Works of Obedience in Second Temple Judaism: Romans 4:4-5 as a 'New Perspective' Case Study,"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1(4) (2009), 795-812.
- Dunn, J. D. G., *New Testament Theology : An Introduction. Library of Biblical Theolog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 _____, "Once More: Pistis Christou," Edited by E. H. Lovering Jr., *Sbl Seminar Papers*, Atlanta: Scholars, 1991.
- _____, *Paul and the Mosaic Law*, WUNT, Tübingen: Mohr, 1996.
- _____, *Romans*, WBC. 2 vols. Dallas, TX: Word Books, 1988.
- _____,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1998.
- Easter, M. C., "The Pistis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9(1) (2010), 33-47.
-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st ed. New York: Doubleday, 1993.
- Gathercole, S. J., "What Did Paul Really Mean?: 'New Perspective' Scholars Argue That We Need, Well, a New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by Faith," *Christianity Today* 51(8) (2007), 22-28.
- _____, *Where Is Boasting? : Early Jewish Soteriology and Paul's Response in Romans 1-5*,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2002.
- Hays, R. B.,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2002.
- _____, "Three Dramatic Roles: The Law in Romans 3-4," Edited by J. D. G. Dunn, *Paul and the Mosaic Law*,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2001.

- Hofius, O., "The Adam-Christ Antithesis and the Law: Reflection on Romans 5:12-21," *Paul and the Mosaic Law*, Edited by J. D. G. Dunn, *Paul and the Mosaic Law*,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2001.
- Hooker, M. D., *From Adam to Christ: Essays on Pau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Hurtado, L. W., *Lord Jesus Christ : Devotion to Jesus in Earliest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W.B. Eerdmans, 2003.
- Jewett, R., *Roman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Levison, J. R., "Adam and Eve in Romans 1.18-25 and the Greek Like of Adam and Eve," *New Testament Studies* 50(4) (2004), 519-34.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2016.
- _____, *Introducing Romans : Critical Issues in Paul's Most Famous Letter*,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2011.
- McFarland, O., "Whose Abraham, Which Promise?: Genesis 15.6 in Philo's *De Virtutibus* and Romans 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5(2) (2012), 107-129.
-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1996.
- Shaw, D., "Romans 4 and the Justification of Abraham in Light of Perspectives New and Newer," *Themelios* 40(1) (2015), 50-62.
- Stowers, S. K., *A Rereading of Romans : Justice, Jews, and Genti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Thielman, F., "God's Righteousness as God's Fairness in Romans 1:17: An Ancient Perspective on a Significant Phras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1) (2011), 35-48.

- Tilling, C., "Abraham in New Testament Letters," Edited by S. A. Adams and Z. Domoney-Lyttle,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London; New York: T&T Clark, 2019.
- Witherington, B. and D. Hyatt.,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2004.
- Wright, N. 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_____, "Paul and the Patriarch: The Role of Abraham in Romans 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5(3) (2013), 207-241.
- _____, *Pauline Perspectives: Essays on Paul, 1978-2013*.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3.

<초록>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통해서 본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 분석

이승현

(호서대학교 부교수)

이방인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의 핵심으로 간주한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했다(비교, 갈 1:11-16; 롬 1:14-15).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의 자손’ 예수와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4장에서 예수-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지닌 의미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바울에 대한 옛 관점과 새 관점 간의 다양한 해석학적 충돌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 개인적 구원론적 견해, 그리고 (2) 공동체적 사회학적 견해. 이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울 신학을 주도하는 거대서사를 바울 서신서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바울에게 강요하곤 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가상의 거대서사를 통해서 바울을 해석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를 곡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로마서의 거대서사를 로마서의 내부적 문맥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를 그 거대서사의 전개 속에서 관찰해 보아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16-17에서 로마서 전체의 논지인 예수-복음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하나님의 의 앞에 선 인류의 죄 이야기와 그 죄 이야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중심으로 로마서의 논의를 전개해 간다. 인류의 죄 이야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의 거대서사이다. 그리고 인류의 죄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각각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형상화된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아담에게 속한 죄인 된 인류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새 인류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Abstract>

Paul's Understanding of Abraham Seen in Humanity's Sin Story and God's Grace Story

Assoc. Prof. Simon SeungHyun Lee
(Hoseo University)

It is beyond doubt that Abraham was a critically important figure for the Jews in the 2nd Temple period, since their national identity was found in the covenant that God established with him. For Paul, who considered his proclamation of Jesus-Gospel to the Gentiles as the key element of his apostolic calling, Abraham was a very important figure as well(cf. Gal 1:11-16; Rom 1:14-15). Paul found in the Abrahamic covenant God's promise of the seed Jesus and the blessing of the Gentiles. So, in Romans 4 and Galatians 3-4, Paul explains in detail the implication of Jesus-Gospel for the Gentiles in light of the Abrahamic story. Recently, in the midst of the hermeneutical collision between the so-called New Perspective and Old Perspective on Paul, the analysis of Paul's understanding of Abraham proceeded in two major ways: (1) an individual salvific opinion and (2) a communal sociological view. In this process, however, some scholars imposed upon the Pauline epistles the stories that were not found in them, so-called controlling meta-narrative. Instead, we have to analyze Paul's understanding of Abraham not from outside of Romans, but from inside of it. First of all, Paul introduces in brief the major argument of Romans in 1:16-17. Then, Paul explains the sin story of humanity, who stand condemned before the righteous God, and God's grace story, who justified humanity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ant to analyze Paul's interpretation of Abraham in the multi-faceted dialogue between these two stories.

